

2023년 1월 14일 “(아바드의 사람들 2) 삶의 주인을 찾다”(출 3:12)

이스라엘은 적대적인 바로를 만나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기로 결단하십니다. 이집트로부터 구출하시고 그들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삶의 참 주인을 만나는 자리를 계획하셨습니다.

[1] 사람을 만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백성의 고초를 보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의 심정을 털어놓습니다(3:7-9). 그리고 모세와 함께 하셔서 출애굽 시키신 후에, 주님을 예배할 미래의 그림을 그리십니다.

출애굽의 구원자, 가나안의 여정의 인도자, 공급하고 지키시는 보호자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개인적 차원을 넘어 공동체적(국가단위) 차원에서 드리는 예배의 자리를 원하신 것입니다.

본문의 ‘예배하다’의 원어가 ‘아바드’입니다(개역개정 - ‘섬기다’). 그들은 노예살이 할 때와 완벽하게 대조되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 전에는 압제와 고통 속에서 바로를 섬겼다면, 이제는 자유와 희망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즉, 예배의 대상, 삶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2] 정확하게 우리에게 일어난 일

이 일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도 성경도 몰랐었지만 예수님은 당신을 보면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께 삶을 의탁 드리며, 고백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배자의 삶 속에서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 이제 우리는 바로(세속)의 방식과 구조 속에 더 이상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 주신 곳은 ‘산’입니다(본문). ‘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상징적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사람은 사랑과 순종을 향한 자유의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의 체제 속에서 힘과 조종 욕구로 짜인 방식과 틀과 특정 이념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입니다(고후 3:18).

이제 우리 삶의 참 성공은 제국 취향의 좋은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참 의미와 가치의 충만함을 누리는 데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에덴에서 아담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뱀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뱀이 유혹한 내용은, i. 눈이 밝아지는 것, ii.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창 3:5).

우리는 눈이 더욱 밝아져서 형제 눈 속의 티끌을 잘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비난 받아야 할 사람을 찾고, 얼마나 어떻게 나쁜 자인지 밝히기를 원합니다. 아담은 선악 열매를 먹고 눈이 밝아져 핑계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한편 예수님은 우리 눈이 밝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마 6:22 '네 눈이 밝으면(성하면) 네 온 몸이 밝을 것이다'). 밝은 눈의 정상적인 역할은 자기성찰과 전인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누구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삶의 영역을 구축하면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처럼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잘 안 되면 화나고, 슬퍼하고, 미워하며, 인생에 회의를 느낍니다. 하나님처럼 안 되어서 속상하고 억울해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문제들은 되풀이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늘 쉽고 너끈히 이길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모습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란 개인적으로 또는 그룹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삶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어떤 예배이든 형식을 따르지만 무엇보다 진실한 고백과 주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삶의 참 주인을 만나 예배하는 아바드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탄의 유혹에도 예배의 자리에서 영적 승리를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들>

1. '아바드'의 뜻에는 예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생각해온 예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함께 본 내용에 비추어볼 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2. 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는 것에 관한 창 3:5 의 말씀은 인간 본질의 왜곡을 보여줍니다. 이 두 문제에 대한 극복의 길은 무엇일까요?